

長興 新豊里 靑銅器時代 聚落의 定住形式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orm of Settlement in Bronze Age Based on Jangheung Sinpoong-ri Site

신상호*
Shin Sang Hyo

천득염**
Cheon, Deuk Youm

Abstract

Remains of settlement are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he life style of the time and restoring it. This paper analyzed and studied the residential lives of the time including location of settlement, form and size, interior and change patterns based on Jangheung Sinpoong-ri Site. This study will have a meaning in that it deals with settlement in community well beyond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settlement in small sizes and is expected to be a principle one about human residential structure.

Keywords : Bronze Age Settlement, Jangheung Sinpoong-ri site, Settlement culture, Residential life style

주요어 : 청동기시대 취락, 장흥신평리유적, 취락문화, 주거생활

1.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 이 가운데 사는 가족 및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의 생활행위를 반영하고 있다. 시원적인 주거형식은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생활양식에서부터 나타나며 대체로 동굴주거에서 竪穴式住居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인간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집을 짓고 머물러야 하는데 인류가 최초로 만든 살림집은 움집으로 알려져 있다. 움집은 보온을 위해 적당한 깊이로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얹어 갈대나 식물의 줄기를 이용하여 지붕을 구성한 집을 말한다. 이러한 움집은 신석기시대에 축조되기 시작하며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살림집으로 보편화된다. 결국 초기농경단계인 신석기시대에 비해 한 곳에 정착생활이 이루어지는 청동기시대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대단위의 취락이 형성된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유적단위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움집의 수효는 1기 내지 10여기 정도로 조사되어 취락의 규모, 변화양상, 주변 분묘유적과의 관계, 논·밭을 비롯한 생산유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비록 구제발굴조사이긴 하지만 남강댐수몰지구,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탐

진댐 수몰지구, 울산 김단리유적¹⁾, 보령 관창리유적²⁾, 제주 삼양동유적³⁾, 대구 동천동유적⁴⁾ 등 대규모 취락유적이 조사되어 주거지와 취락에 대하여 한층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⁵⁾. 취락유적은 분묘 등의 매장유적과 달리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흔적으로써 당시의 생활상 복원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전남지방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취락의 하나인 탐진댐수몰지구내 장흥 신평리유적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입지, 형태와 규모, 내부시설, 변화양상 등을 통하여 당시 생활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단일주거에 국한되었던 이제까지의 연구 범위를 넘어 군집을 이루는 취락연구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생태환경지향적인 참살이를 위한 인간의 정주체계에 대한 원론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회원(주저자),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정회원(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부산대학교박물관(1995), 『蔚山 檢丹里 마을遺蹟』.
- 2)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2001), 『寬倉里遺蹟』.
- 3) 제주대학교박물관(2001), 『제주 삼양동유적-II·III 지구』.
-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대구 동천동취락유적』.
- 5) 이진무(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 『擇窩 許善道先生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안재호(2001), 「中期 無文土器時代의 聚落構造의 轉移」, 『嶺南考古學』 29, 嶺南考古學會.
송만영(2001), 「南韓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 『韓國 農耕文化의 形成』, 韓國考古學會.
- 6) 이영철·박수현(2005), 『장흥 신평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II. 취락의 환경과 구조적 특징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 주거유적이 처음 조사된 것은 1931년 함북 용기 송평동주거지⁷⁾이다. 그 후 간헐적인 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1. 취락의 입지와 분포

표 1. 신평주거지 일람표

취락	호수	평면 형태	규모(cm) (직경×최대×깊이) (장축×단축×최대깊이)	장단비	면적 (m ²)	타원형 구멍이(cm) (장축×단축×깊이)	주공(cm)			비고	
							주공 배치	주공간 거리	직경×깊이 왼쪽 오른쪽		
취락 1	38	원형	383~379×24	1.01	11.5	126×78×20	2주공	68	24×30	22×36	소형주거
	39	원형	360~356×31	1.01	10.2	108×87×24	2주공	65	17×31	16×28	소형주거
	40	원형	552~515×10	1.07	23.9	164×104×21	2주공	86	22×29	22×26	토광묘와 결합 표준주거
	41	원형	480~448×15	1.07	18.1	106×74×15	2주공	52	26×31	16×27	표준주거
	42	말각/쌍형	345×306×0	1.13	10.6	110×76×18	2주공	50	20×30	20×34	소형주거
	43	원형	380~330×12	1.15	11.3	100×60×32	2주공	47	26×40	27×38	소형주거
	44	(추정)원형	(추정) 438~418×0	1.05	18.3	112×62×14	2주공	72	18×7	22×16	표준주거
49	(추정)원형	(추정) 713~620×8	1.15	39.9	120×72×22	2주공	31	20×22	19×18	특수목적주거	
취락 2	1	타원형	596~498×11	1.20	27.9	207×81×26	2주공	111	23×50	52×44	화재폐기 확대주거
	2	원형	475~456×9	1.04	17.7	103×82×29	2주공	81	24×17	24×20	표준주거
	3	원형	650~646×24	1.01	33.2	138×88×28	2주공+4주공	76	26×33	24×38	화재폐기 확대주거
	5	원형	524×519×12	1.01	21.6	147×100×24	2주공	90	21×23	28×24	표준주거
	24	원형	360~336×13	1.07	10.2	109×69×20	2주공	40	18×36	17×35	소형주거
	26	원형	576~560×24	1.03	26.0	191×80×24	2주공	120	28×40	29×37	확대주거
	27	타원형	754~629×33	1.20	44.6	174×100×28	2주공	91	35×55	34×32	특수목적주거
	28	타원형	446~326×13	1.37	14.5	124×86×20	2주공	78	18×28	18×29	소형주거
	29	타원형	424~345×22	1.23	14.1	105×51×15	2주공	54	20×24	21×25	소형주거
	30	말각/쌍형	457×369×7	1.24	16.9	106×68×22	2주공	48	19×27	20×27	표준주거
51	원형	674~670×0	1.01	35.7	124×57×20	2주공	107	22×8	31×12	특수목적주거	
취락 3	4	원형	512~490×13	1.04	20.6	94×60×22	2주공	80	18×30	20×33	표준주거
	6	말각/쌍형	412×396×15	1.04	16.3	123×65×19	2주공	40	25×30	25×32	표준주거
	7	원형	470~444×13	1.06	17.3	122×102×33	2주공	56	26×43	25×40	표준주거
	8	원형	408~384×12	1.0	13.1	126×78×18	2주공	34	27×34	32×33	소형주거
	9	원형	502~470×27	1.07	19.8	132×78×21	2주공	50	26×23	22×30	표준주거
	10	말각/쌍형	476×422×9	1.13	20.1	114×68×23	2주공	40	29×26	23×16	표준주거
	11	말각/쌍형	412×389×13	1.06	16.0	94×83×21	2주공	44	20×22	23×30	표준주거
	12	말각/쌍형	407×429×9	1.05	17.5	138×90×18	2주공	60	26×18	30×26	표준주거
	13	말각/쌍형	459×422×24	1.09	16.5	109×85×22	2주공	34	37×25	30×22	표준주거
	14	원형	800~740×33	1.02	50.2	148×116×29	2주공+4주공	76	28×44	24×39	화재폐기/특수목적주거
	16	원형	380~368×35	1.03	11.3	96×88×27	2주공	27	28×23	24×25	소형주거
	17	원형	457~446×15	1.02	16.4	122×67×19	2주공	84	30×24	30×21	표준주거
	18	원형	436~420×15	1.04	14.9	112×67×27	2주공	58	24×34	20×32	소형주거
19	말각/쌍형	539×508×12	1.06	27.4	120×72×25	2주공	62	30×33	23×39	확대주거	
20	원형	580~520×19	1.12	26.4	142×94×18	2주공+4주공	72	33×19	45×29	확대주거	
23	원형	694~670×0	1.04	37.8	107×83×20	2주공+4주공	110	17×14	22×8	특수목적주거	
25	원형	344~300×15	1.15	9.3	86×25×17	2주공	38	18×19	16×24	소형주거	
31	원형	386~359×16	1.08	11.7	101×54×18	2주공	48	11×26	19×30	소형주거	
32	원형	437~457×4	1.05	16.4	126×69×28	2주공	72	21×29	18×30	표준주거	
33	원형	370~360×16	1.03	10.7	108×62×20	2주공	44	24×35	20×28	소형주거	
15	말각/(강)쌍형	780×428×16	1.82	33.4	112×61×27	2주공	72	30×32	28×21	확대주거	
21	원형	532~480×9	1.11	22.2	165×89×15	2주공	70	26×31	18×26	표준주거	
22	원형	458~432×10	1.06	16.5	104×84×20	2주공	34	31×35	39×27	표준주거	
34	원형	520~518×9	1.00	21.2	80×60×14	2주공	59	36×21	44×22	표준주거	
35	말각/쌍형	394×330×9	1.19	13.0	106×63×13	2주공	49	22×15	21×33	소형주거	
취락 4	36	말각/쌍형	436×380×13	1.15	16.6	118×58×27	2주공	41	31×37	30×33	표준주거
37	원형	396~388×10	1.02	12.3	102×70×16	2주공	42	19×34	21×25	소형주거	
45	원형	426~402×12	1.06	14.2	122×51×26	2주공	50	14×33	20×26	토광묘와 결합 소형주거	
46	원형	346~334×2	1.04	9.4	106×47×16	2주공	56	22×39	19×18	주구와 결합 소형주거	
47	말각/쌍형	436×396×18	1.10	17.3	120×80×23	2주공	82	12×16	14×15	표준주거	
48	원형	463~448×27	1.03	16.8	118×58×13	2주공	54	26×37	23×32	표준주거	
50	원형	380~376×5	1.01	11.3	100×40×20	2주공	54	12×24	14×26	토광묘와 결합 소형주거	

서 남한 전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들 주거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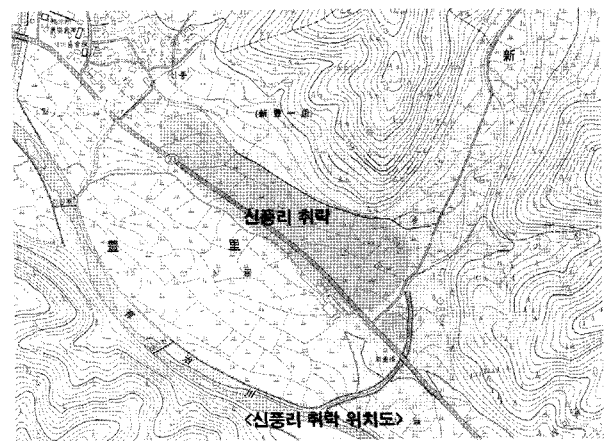
전남지역에서의 취락유적은 1977년에 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 행한 광주 송암동 유적의 조사가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다⁸⁾. 본격적인 조사는 주암댐 수몰지구에 대한 구제발굴⁹⁾의 일환으로 1986년에 순천 대곡리유적¹⁰⁾을 발굴조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영암 장천리¹¹⁾·금계리¹²⁾, 광양 용강리¹³⁾, 화순 북교리¹⁴⁾, 곡성 유정리¹⁵⁾, 순천 죽내리¹⁶⁾, 무안 인평리¹⁷⁾, 영광 군동¹⁸⁾·마전¹⁹⁾, 광주 외촌·수완동²⁰⁾등지에서 조사되었다. 이러한 취락유적은 고고학에서 송국리형 주거지로 명명되어 연구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송국리형 주거는 내부바닥 중앙부에 장타원형의 작업공을 가진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평면형태가 대부분 원형계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예를 살펴보면 방형계 주거지도 상당수 있으며 원형계와 방형계가 중첩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역에 따라 선후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송국리형 주거는 충청·전라도를 비롯해 경상도지역 즉 우리나라 중서부와 남부 일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제주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²¹⁾, 그 분포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송국리형주거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어 九州를 비롯해 瀬戶内海 沿岸의 각지에서 발견되는데, 弥生時代 원형 주거 성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신석기시대 취락의 입지는 대개 물과 식량자원이 풍부한 해안가 언덕, 큰 강가의 대지, 인근 도서지방에 자리 잡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옥천 대천리²³⁾, 김천 송죽리²⁴⁾, 진주 상촌리²⁵⁾, 진안 갈머리²⁶⁾, 함평 장년리유적²⁷⁾ 등의 발굴조사로 깊은 내륙지방의 작은 강가에서도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전시대에 비해 청동기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전지역에 크고 작은 취락이 분포하게 되며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취락의 입지에 대하여 정정원은 크게 구릉성, 저지성, 고지성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구릉성은 전기와 중기, 저지성은 중기이후 주거지 유형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저지성은 수도농경의 전파에 의해 남부지방에서 농경의 시작으로 형성된 새로운 집락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²⁸⁾. 이 분류에 의하면 전남지역 취락 유적의 입지는 江岸의 넓은 대지나 얇은 구릉을 택하고 있어 대부분 구릉성과 저지성에 해당되며 고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흥 신흥리취락유적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흥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주변은 산지로 둘러싸여 협곡을 이루고 있으며 탐진강의 지류인 유치천이 관통하고 있다.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치천을 중심으로 약간의 저평한 평지가 펼쳐지고 산지사이에 움천천, 수덕천 등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물길은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신흥리 취락유적의 입지는 저지성에 해당되며 51기의 수혈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는데 모두 송국리형주거지이다.

- 7) 藤田亮策(1931), 「雄基 松坪洞 石器時代遺蹟의發掘」, 『청구학보』 6, pp.191-192.
- 8) 최몽룡(1979), 『光州 松岩洞住居址·忠孝洞支石墓』, 全南大學校博物館.
- 9)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1989·1990),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 (VII).
- 10) 서성훈 외(1989), 『大谷里 도롱·한실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 全南大學校博物館.
- 11) 최성락(1986), 『靈巖 長川里 住居址』 I·II, 木浦大學校博物館.
- 12) 최성락·한옥민·한미진(2004), 『영암 금계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3) 최인신·박태홍·송미진(2003), 『光陽 龍江里機頭遺蹟』, 순천대학교박물관.
- 14) 송정현 외(1990), 『竹山里 하죽·福橋里遺蹟』,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I, 全南大學校博物館.
- 15) 윤덕향(1997), 『谷城 柳亭里 玉坪 遺蹟』, 『湖南高速道路擴張區間(古西-順天間)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II, 全南大學校博物館 外.
- 16) 이기길·최미노·김은정(2000), 『순천 죽내리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 17) 최성락·이영철·한옥민(1999), 『무안 인평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 18)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2001), 『영광 군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 이기길·최미노·김선주(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 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 20) 이영철·이승룡·최영주(2005), 『광주 외촌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수완동유적은 보고서 미간(호남문화재연구원발굴조사).
- 21) 제주대학교박물관(2001), 『제주 삼양동유적-II·III지구』.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대구 서변동 취락유적』 I.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大邱 東川洞 취락遺蹟』.
- 22) 이건무(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 23) 한창균 외(2002), 『옥천대천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발굴 성과』, 『한국신석기연구』 3.
- 24) 배성혁(2001), 『경북 김천 송죽리 신석기시대 유적』, 『신석기시대 패총과 동물유체』, 제4회 한일신석기문화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 25) 동아대박물관(2001), 『진주 상촌리 선사유적』.
- 26) 안승모 외(2003), 『갈머리 유적』, 『진안용담댐수몰지역 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3, 호남문화재연구원.
- 27) 최성락·이헌중(2001), 『함평 장년리 당하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28) 정정원(1991), 『初期農耕遺蹟의立地環境』, 『日韓交渉의考古學』, pp.36-39.

2. 취락의 형태와 규모

1) 취락의 형태

취락의 구성은 크게 4개군으로 밀집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각 수혈주거지간의 최소거리는 1m 이내이며 시기를 달리하는 중첩은 한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중앙부에서 축조되어 좌우로 확대배치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말각장방형), 방형(말각방형), 타원형, 원형 등이 있으나 신평리취락유적에서는 장방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발굴조사된 51기중 평면형태는 원형계통이 39기(원형 35기, 타원형 4기), 방형계통이 12기로 원형계통이 2/3이상인 76.5%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지금까지 조사된 전남지역의 대부분의 취락유적에서 방형계보다 원형계가 주거지 평면으로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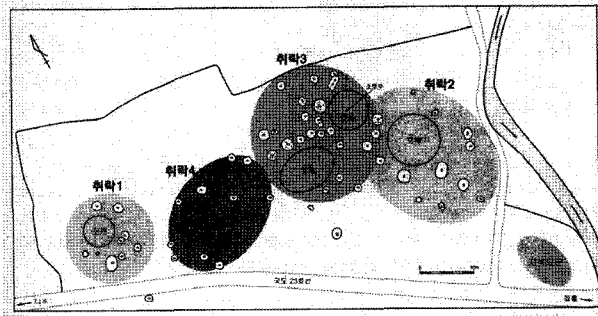


그림 1. 신평리취락 배치도 (장흥 신평리유적 보고서 인용, 재편집)

표 2. 신평리취락의 주거지 평면과 기둥배치 (장흥 신평리유적보고서 인용)

평면 형태	주공배치						기둥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원형계	28기 (57.2%)	2기 (6.1%)	3기 (6.3%)	1기 (2.0%)	1기 (2.0%)	2기 (4.0%)	37기 (75.5%)
방형계	11기 (22.5%)		1기 (2.0%)				12기 (24.5%)
계	39기 (79.7%)	2기 (4.0%)	4기 (8.3%)	1기 (2.0%)	1기 (2.0%)	2기 (4.0%)	49기 (100%)

2) 취락의 규모

장흥 신평리 취락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51기로 C-14연대순금 맞춤값이 기원전 8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대로 200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고 시기차를 반영하여 크게 3단계 4개 주거군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⁹⁾. 본 논문에서는 출토유물과 주거지형태에 있어 약간의 시기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4개의 주거군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1>을 살펴보면 취락 1은 8기, 취락 2는 11기, 취락

3은 20기, 취락 4는 12기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51기의 평균면적은 21.4 m²로 나타났으며, 취락 1은 18 m², 취락 2는 23.9 m²이다. 취락 3은 19.5 m², 취락 4는 17 m²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필자가 송국리형주거지의 분석에서 밝힌 바 있는 표준주거 20 m²(15-25 m²)³⁰⁾에 모두 들어오는 수치이다. 따라서 신평리 취락유적의 주거단위면적 1인당 5 m²³¹⁾, 4인가족 20 m²를 기준 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의 단위는 10 m²단위(2명기준)로 확장되는데 이를 토대로 소형주거 10 m²(15 m²이하), 표준주거 20 m²(15-25 m²), 확대주거 30 m²(25-35 m²), 특수목적주거 40 m²(35 m²이상)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취락별로 적용하면 취락 1은 소형주거 4기, 표준주거 3기, 특수목적주거 1기이며, 취락 2는 소형주거 3기, 표준주거 3기, 확대주거 3기, 특수목적주거 2기이며, 취락 3은 소형주거 6기, 표준주거 10기, 확대주거 2기, 특수목적주거 2기이며, 취락 4는 소형주거 5기, 표준주거 6기, 확대주거 1기로 분류되었다.

이를 주거형태별로 분석하면 각 취락마다 대형의 주거지가 배치되고 있는데 대체로 10기에 1기씩 분포하고 있으며 그 둘레에 3-4기의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각 취락마다 주거지가 배치되지 않는 중앙광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목적주거와 중앙광장은 취락생활에 있어서 공동의 관심사 또는 작업, 조리 등을 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평리 취락유적의 정주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수는 청동기시대 1인당 주거면적을 5 m²로 보면 소형주거에서는 2.4인, 표준주거 4인, 확대주거 6인, 특수목적주거 8인으로 계산되어 최대 207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여기에 송국리형 취락유적의 주거단위면적 20 m²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2명으로 당시 신평리 취락의 인구는 대략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취락의 건축기술

1) 바닥과 벽체<사진 1>

바닥은 사질점토에 자갈이나 진흙을 깔았으나 특기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수혈 바닥을

29) 51기의 주거지중 8기의 주거지에서 탄소연대측정 시료 13점을 채취하여 얻어진 절대연대값은 기원전 765~572년의 연대폭을 가지며, 그 중심값은 658년으로 보고 200년 동안 신평리 취락이 지속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영철·박수현, 『장흥 신평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그러나 이 절대연대값은 51기의 주거지 중 1/5의 비율에도 못 미친 8기의 주거지에서 채취한 평균값을 의미하며 이가운데 취락 2에서 5기의 시료가 집중된 것으로 51기의 주거지 전체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또한 51기의 주거지중 중북관계가 1기에만 나타나는 점, 그리고 내부에 배치되는 시설과 출토 유물상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35기의 고인돌 등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30) 신상호(1996), 『송국리형주거지의 복원적 고찰』, 『호남고고학보 제4집』, 호남고고학회.

31) 김정기(1974), 『國竪穴住居址考』, 『고고학』 3집, 한국고고학회, pp.35-38.

판 후 부분적으로 정지작업을 하여 대부분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해석된다. 수혈벽 역시 경작이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삭평되어 남아있는 깊이로는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남아 있는 수혈벽은 주거지 축조 당시 수직에 가깝게 파낸 그대로이며 송국리 54-2호 장방형주거지에서 판자를 덧댄 흔적³²⁾ 등 건축적인 특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진 1. 바닥·벽체·기둥구멍 사진 2. 기둥구멍속의 목심

2) 기둥구멍<표 2, 사진 1·2·3>

기둥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재로 실재 기둥이 남아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은 주거지의 사실이다. 신평주거지의 기둥구멍은 기본적으로 중앙 타원형구멍이내의 중심기둥 2개와 방형으로 배치된 4주, 벽가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보조기둥이 있다. 기둥구멍은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배치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기둥 배치상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 타원형 작업공을 배치하고 그 양단부에 기둥이 배치되는 2주공식과 2주공에 대칭으로 4개의 기둥이 배치되는 6주공식이다. 51기중 2주공식은 47기로 압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6주공은 4기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순천 대곡리 취락유적에서 보이는 4주공식³³⁾은 조사되지 않았다. 중앙부에 세워지는 2주공식 기둥구멍의 직경은 대체로 20-30 cm, 깊이는 30 cm 내외이며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굴착되고 양 기둥구멍이 비슷한 깊이를 가진다. 6주공식은 총 4기로 모두 규모가 직경 6 m 이상인 원형주거지이다. 즉, 원형주거지이면서 가운데 중심 기둥구멍 이외에 기본적으로 4개의 기둥구멍이 방형형태로 배치되는데, 한쪽 구멍열의 중앙에는 기둥구멍이 하나 추가된 총 5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4주를 갖춘 주거지를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의 주거지 또는 특별한 기술을 소유한 자의 주거지로 보면서 방형주거지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³⁴⁾.

3) 벽구<사진 3·4>

벽구는 주거지 수혈벽 아래를 따라 만들어진 도랑을



사진 3. 14호주거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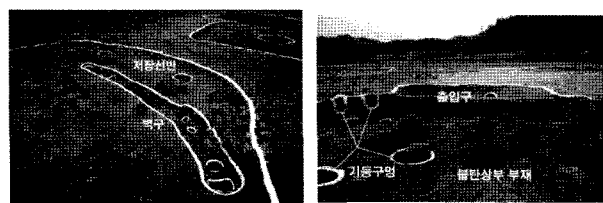


사진 4. 벽구와 저장선반

사진 5. 출입구

말한다. 기능은 배수 또는 벽체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지방 일부지역에서는 주거지 바닥면을 따라 중앙부 기둥이 배치되는 타원형 작업공으로 도랑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신평리취락에서는 14호 원형주거지에서만 벽구가 확인되었다. 벽구는 주거지 수혈벽 남서벽에 잇대어 길이 4 m, 폭 0.3 m, 깊이 0.1 m로 만들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과 양단에서 직경 15 cm의 구멍이 확인되었다. 51기중 1기에서만 확인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인근의 갈두취락과 보성강,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송국리형취락의 입지가 강변의 저지성 평지에서 벽구가 확인되지 않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송국리형 취락유적에서는 서해안지역의 구릉성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영광마전³⁵⁾·군동취락유적³⁶⁾ 등에서 벽구가 확인되고 있으나 전남지방에서는 일반적인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출입구<사진 3·5>

송국리형 취락유적의 주거지 출입구는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돌출부를 만들어 출입구를 만들기는 하나 그 예가 많지 않다. 신평리취락 유적에서도 14호 원형주거지가 유일한데, 주거지 상면에서 약 20 cm 정도 단을 만들어 돌출시키고 있다. 돌출부는 2 m×1 m 규모의 장방형으로 내부에서는 작은 주공 2개가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전북 진안 농산유

32) 국립중앙박물관(1986), 『송국리』 II,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18책.

33) 서성훈 외(1989), 「大谷里 도릉·한실住居址」, 『住岩岾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 全南大博物館.

34) 김지태(1999), 『松菊里型住居址의 研究』, 동아대석사학위논문, p.66.

35) 이기길·최미노·김선주(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 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36)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2001), 『영광 군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적 8호주거지³⁷⁾, 진주 대평리 옥방5지구 D구역 8호주거지³⁸⁾, 제주 삼양동 I-2호와 I-5호주거지³⁹⁾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돌출된 출입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의 출입은 움집의 한 부분에 드나드는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해 주는 확실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 내부로 드나드는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였거나 또는 지표면과 주거지 내부의 생활면이 1단정도의 깊이 차이를 보일 때 돌출부를 만들지 않고 벽체일부를 개구부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5) 화덕자리<사진 7>

송국리형 취락유적의 주거지 내부에서는 노지가 확인된 예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불의 사용이 마을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취사의 성격을 띠며 사용되거나 주거지내에서 노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신평리취락유적의 주거지내부에서는 노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계별 주거지 배치상에 있어서 중앙부에 주거지가 배치되지 않고 공터로 남아 있는데 아마도 공공의 장소 즉 마을내 회의나 취사 등의 주요관심사에 대한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14호 주거지 주변의 공터에 1m 범위의 소토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상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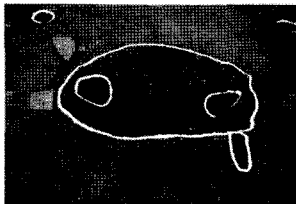


사진 6. 타원형구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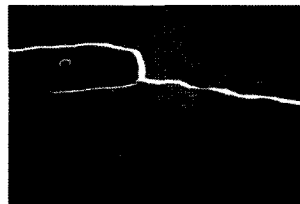


사진 7. 소토부(화덕시설)

6) 타원형 작업공<사진 6>

송국리형취락유적의 특징은 내부 중앙에 1m 안팎의 타원형 구덩이가 기둥구멍과 함께 배치되는 것이다. 이 구덩이의 기능연구는 출토유물과 구덩이내부 석설 등을 근거로 생업도구를 제작, 보수, 보관하는 작업공 또는 작업을 위해 물을 모으는 집수구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최근에 조사예가 늘어나면서 그 기능이 여건에 따라 다양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신평리취락에서도 51기의 주거지내에 타원형 구덩이가 확인되었는데 기존의 도구를 만드는 제작소의 기능과 토기가 다량으로 확

37) 전북대학교박물관(2001), 『농산유적-진안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V, 전북대학교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pp.77-78.

38) 이형구(1999), 『진주 대평리 옥방5지구 선사유적 발굴조사와 성과』,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문화재청·경상남도·남강선사유적발굴단, pp.59-79.

39) 제주대학교박물관(2001), 『제주 삼양동유적-II·III지구』

인되었을 뿐 화덕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구덩이 주변에서 붙먹은 소토부가 일부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작업과 관련된 불의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7) 저장시설<사진 3·4·8>

신평리취락의 저장시설은 수혈구덩이와 선반으로 추정되는 단에서 확인되었다. 수혈구덩이는 3호주거지의 서벽에 잇대어 150×80 cm 정도로 장방형이다. 14호 주거지에서는 북동벽에 40 cm 정도의 타원형 구덩이가 있고, 20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 바닥면에 2개가 확인되었다. 이밖에 공동으로 쓰이는 저장시설이 주거지 밖의 인접장소에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용도는 곡물이나 토기, 도구 등을 저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4호 주거지의 남서벽에 선반으로 보이는 단이 확인되었는데 이 단에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기능은 주거내부공간을 분할하여 그릇들을 정리하는 수납공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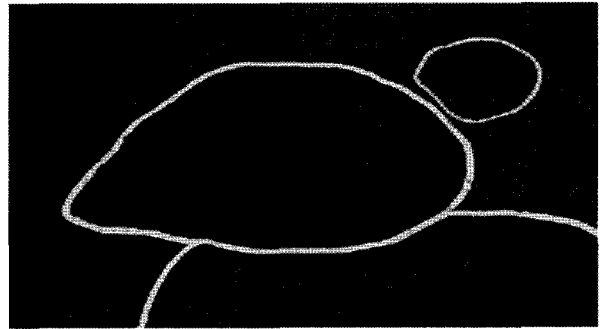


사진 8. 저장수혈(돌무더기)

III. 신평리 취락의 생활문화

1. 출토유물로 본 생활상

신평리취락유적은 51기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식묘군이 인접해 있는데,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거영역과 분묘영역의 공간배치는 청동기시대 신평리 일대에서 인간의 정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거지와 함께 당시 주거생활을 살필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요출토품은 토기, 석기, 토제품, 옥 등이 있다.

토기는 식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주거지내부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완형의 유물은 거의 없고 그 양이 많지 않아 정확한 분석을 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파편이다. 그릇의 기종은 단지, 발, 소형토기 등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용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토기 중 가장 특징은 홍도와 점토대토기가 주거지와 저장시설인 수혈유구에서 각각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도는 5호

와 39호에서 출토되었고 점토대토기는 소형 수혈유구에 서만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석촉, 석부, 석도, 석착, 석검, 방추차, 대석, 솥돌, 망치돌, 미완성석기, 석재, 그리고 석기재료인 원석, 갈돌, 용도불명의 석기 등이 있다. 이를 기능이나 용도별로 살펴보면 석촉과 석검은 부족과 부족간의 전투시 무기로 쓰이지만 평상시는 동물사냥과 관련된 수렵도구로 쓰인다. 석부와 석착은 건축용구 및 굴착구 등 다목적 도구로, 그리고 대석, 솥돌, 망치돌, 석재 등은 생업도구를 제작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밖에 수확구인 석도, 옷을 만드는데 쓰이는 방추차가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사후 세계와 관련하여 고인들을 비롯한 청동기시대 무덤에 부장되고 있다.

한편, 석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망치돌, 모룻돌, 솥돌 등의 출토지점이 주거지 타원형구덩이내 또는 구덩이와 인접한 지점에서 확인된 예가 많아 주거지 내부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석기제작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외에 갈돌과 석기제작과 관련된 석기원석, 미완성석기, 석기편, 용도불명석기, 타제석기 등이 있다. 이 중 미완성석기는 길이 약 10cm 크기로 잔손질된 것이 대부분인데 석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완성석기는 전체 주거지 중 37기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석재편들이 전체 주거지 중 20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11호주거지와 36호주거지 내에서는 다량의 석재편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토제품으로는 어망추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활상은 신평리취락유적의 앞에 흐르고 있는 유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영위하였다는 물질적인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장신구인 옥이 있다. 옥은 모두 191점으로 40호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옥이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고 있다.

2. 영역으로 본 생활상

신평리 취락은 크게 주거영역, 농경영역, 무덤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경지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거영역과 무덤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영역은 총 51기의 주거지가 4개의 단위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취락 1은 8기, 취락 2는 11기, 취락 3은 20기, 취락 4는 12기이다. 출토유물상이나 주거지의 축조방법 등에서 시기적으로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취락 3이 정주성 취락으로 자리잡고 좌우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51기의 평균면적은 21.4㎡로 나타났으며, 취락 1은 18㎡, 취락 2는 23.9㎡이다. 취락 3은 19.5㎡, 취락 4는 17㎡이다. 주거단위 면적 1인당 5㎡, 4인가족 20㎡를 기준 면적으로 할 때 소형주거 10㎡(15㎡이하), 표준주거 20㎡(15-25㎡), 확대주거 30㎡(25-35㎡), 특수목적주거 40㎡(35㎡이상)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10㎡ 이하의 주거지는 사실상 주거의 기능보다는 일종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락은 주거지가 배치되지 않는 중앙의 광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마을을 이루면서 소단위로 독립적인 4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중심마을인 취락 3은 광장이 2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마을의 중앙부에 있는 광장은 취락 전체의 공공장소의 성격을, 북쪽부에 있는 광장은 음식의 조리공간으로 야외 취사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농경의 확산과 인구의 증가 등 당시의 사회적인 요소가 변화되면서 이른 바 마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장방형은 확인되지 않고 중기이후의 원형계 또는 방형계 주거지, 즉 송국리형주거지가 전부이다. 취락의 입지는 세장한 곡간지대의 저평한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농경지, 매장공간의 배치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 내에서 하는 일은 음식을 저장하고 각종 생업도구를 제작하는 동시에 일부 주거지에서는 음식의 조리가 행해졌을 것으로 보이나, 주거지내부에서 노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된 취사행위는 야외의 장소⁴⁰⁾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무덤영역은 주거영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석묘로 구성되어 있다. 지석묘군은 주거영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총 34기의 묘실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석검, 석촉, 석도, 석부, 석착, 어망추 등으로 대부분 주거영역에서 실생활용으로 쓰이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것은 마을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가는 취락 3에서 주거영역, 농경영역, 무덤영역 등으로 영역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취락생활

인류문화의 시작이 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강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물의 원천이며 상류로부터 옮겨온 비옥한 충적대지는 식량생산의 근원이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주거의 입지가 되었다. 또한 석기제작 기술⁴¹⁾의 발달과 자연에 대한 적응기술이 증대되면서 인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 자연의 혜택만으로 지탱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인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게 된다. 이른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얻기 위해 짐승을 길들이고 식

40) 야외노지는 신평리취락뿐만 아니라 주거지중앙부에 타원형의 작업공이 설치되는 송국리형주거지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청동기시대 전기 세장방형의 주거지에는 1-3개의 위석식 또는 토광형의 노지가 배치되고 있음(한강, 금강, 남강수계 취락유적 보고서나 논문 참조).

41) 磨製石器의 製作에는 먼저 적당한 크기로 석재를 쪼개낸 뒤 形態를 만드는 分割과 調整의 기본공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공정에는 자르기(擦切)·갈기(研磨)·구멍뚫기(穿孔)등의 3 技法이 있다.

물을 재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신평리취락도 유치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농경과 어로, 짐승사냥으로 끼니와 단백질을 보충하였다. 즉 자연에서 획득 가능한 것만을 채집하고 농사와 사냥, 강변에서 물고기와 조개를 잡아서 먹고 살았다. 식량 자원의 확보는 정착생활의 최우선의 과제로 농경지의 확대에 있다. 농경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부, 쟁이, 낫 등이 필요하였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과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큰 취락을 이루면서 부족단위로 살았다. 농경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면서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되고, 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족간에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용도의 농경구와 무기 즉 생업과 관련된 도구<사진 9·10·11>를 취락내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석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미완성석기와 함께 돌감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많이 출토되는 11호·15호·36호 방형주거지의 경우는 주거의 기능보다는 전문적인 석기제작이 행해진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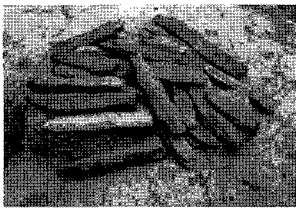


사진 9. 미완성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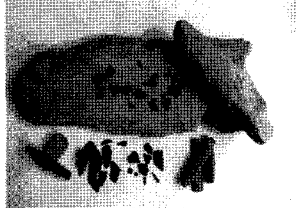


사진 10. 도구제작대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장인집단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동기시대의 특징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인집단의 분화는 생업도구제작, 청동기의 설계와 생산, 살림집 그리고 고인돌의 축조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축조하는 건축기술이 본격적인 패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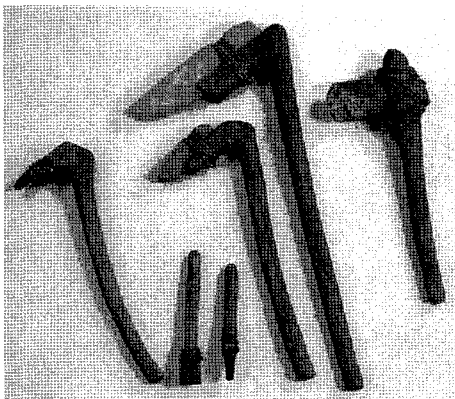


사진 11. 목공구 장착

IV. 결 론

이상과 같이 청동기시대 장흥 신평리취락유적을 대상으로 취락의 입지, 형태와 규모, 내부시설, 주거생활상 등을 연구 고찰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흥 신평리취락은 산지로 둘러싸여 협곡을 이루고 있으며 탐진강의 지류인 유치천이 관통하고 있다. 유치천을 중심으로 저평한 평지가 펼쳐지고 산지사이에 여러 개의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농경과 어로, 사냥 등 생활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주거지는 51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 내부에 타원형구덩이와 기둥구멍이 배치된 송곡리형 주거지이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가 동시에 축조되어 사용되었는데 원형계통이 39기(원형 35기, 타원형 4기), 방형계통이 12기로 원형계통이 2/3이상인 76.5%를 차지하고 있어 방형계보다 원형계가 주거지 평면으로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취락의 연대는 C-14 연대값에 근거하면 기원전 8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심은 기원전 658년이다. 따라서 신평리취락은 기원전 658년을 전후한 100년 동안 존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장흥 신평리취락은 집단을 달리하는 취락이 아니라 정주성을 바탕으로 한 중심취락을 기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주영역, 무덤영역, 농경영역 등 영역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취락생활을 통하여 주거지 축조와 생업도구의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집짓는 기술과 고인돌의 축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장인집단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축조하는 기술이 본격적인 패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유구와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부산대학교박물관(1995), 『蔚山 檢丹里 마을遺蹟』.
2.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2001), 『寬倉里遺蹟』.
3. 제주대학교박물관(2001), 『제주 삼양동유적-II·III지구』.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대구 동천동취락유적』.
5. 이건무(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 『擇窩 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6. 안재호(2001), 「中期 無文土器時代의 聚落構造의 轉移」, 『嶺南考古學』 29, 嶺南考古學會.
7. 송만영(2001), 「南韓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 『韓國 農耕文化의 形成』, 韓國考古學會.
8. 이영철·박수현(2005), 『장흥신평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9. 藤田亮策(1931), 「雄基 松坪洞 石器時代遺蹟의 發掘」, 『청구학보』 6.
10. 최몽룡(1979), 『光州 松岩洞住居址·忠孝洞支石墓』, 全

- 南大學校博物館.
11.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1989·1990),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 (VII).
 12. 서성훈 외(1989), 『大谷里 도롱·한실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 全南大學校博物館.
 13. 최성락(1986), 『靈巖 長川里 住居址』 I·II, 木浦大學校博物館.
 14. 최성락·한옥민·한미진(2004), 『영암 금계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5. 최인선·박태홍·송미진(2003), 『光陽 龍江里機頭遺蹟』, 순천대학교박물관.
 16. 송정현 외(1990), 『竹山里 하죽·福橋里遺蹟』,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I, 全南大學校博物館.
 17. 윤덕향(1997), 『谷城 柳亭里 유평 遺蹟』, 『湖南高速道路擴張區間(古西-順天間)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II, 全南大學校博物館 外.
 18. 이기길·최미노·김은정(2000), 『순천 죽내리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19. 최성락·이영철·한옥민(1999), 『무안 인평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20.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2001), 『영광 군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1. 이기길·최미노·김선주(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22. 이영철·이승룡·최영주(2005), 『광주 외촌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3.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대구 서변동 취락유적』 I.
 24. 한창균 외(2002), 『옥천대천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발굴성과』, 『한국신석기연구』 3.
 25. 배성혁(2001), 『경북 김천 송죽리 신석기시대 유적』, 『신석기시대 패총과 동물유체』, 제4회 한일신석기문화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집.
 26. 동아대박물관(2001), 『진주 상촌리 선사유적』.
 27. 안승모 외(2003), 『갈머리 유적』, 『진안용담댐수몰지역 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3, 호남문화재연구원.
 28. 최성락·이헌중(2001), 『함평 장년리 당하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9. 정진원(1991), 『初期農耕遺跡の立地環境』, 『日韓交渉の考古學』.
 30. 신상효(1996), 『송국리형주거지의 복원적 고찰』, 『호남고고학보 제4집』, 호남고고학회.
 31. 김정기(1974), 『韓國竪穴住居址考』, 『고고학』 3집, 한국고고학회.
 32. 국립중앙박물관(1986), 『송국리』 II,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18책.
 33. 김지태(1999), 『松菊里型住居址의 研究』, 동아대석사학위논문.
 34. 전북대학교박물관(2001), 『농산유적-진안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X, 전북대학교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35. 이형구(1999), 『진주 대평리 옥방5지구 선사유적 발굴조사와 성과』,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문화재청·경상남도·남강선사유적발굴단.

(接受: 2006. 8. 31)